『대순사상논총』 제58집 (2026), pp.259~289
https://doi.org/10.25050/jdaos.2026.58.0.259

북주(北周) 무제(武帝)의 종교 탄압과 그 배경

- 개인적 불교・도교 숭신(崇信) 및 주・제(周齊) 전쟁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최 진 열 *

■ 국문요약

이 논문에서 북주 무제의 종교 탄압 실체와 그 배경을 분석하였다.

북주 무제가 건덕 3년 오월 병자일(574. 6. 21)에 불교만 탄압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유가사상을 제외한 모든 종교와 신앙, 국가에서 공인하지 않은 제사(淫祀)를 없앴다. 따라서 그의 조치를 불교 탄압(廢佛)이 아니라 종교 탄압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그의 인골을 분석한 결과 그가 생전에 비소에 중독되었음이 밝혀졌다. 그가 불로장생에 관심을 가졌고 연단술에 능한 도교 도사들과 가깝게 지냈으며 그들로부터 불로장생의 약을 받아 복용했기 때문에 비소에 중독되었다. 북주 무제의 무덤 속 관에서 발견된 불상도 그의 불교 신앙을 반영한 유물이다. 이는 공식적으로 유가를 제외한 종교나 사상을 탄압했으나 사실 그가 생전에 도교의 불로장생술을 믿고 도사들을 가까이했으며 불교를 비밀리에 또는 사적으로 믿었음을 뜻한다.

북주 무제가 종교 탄압 이후에도 도교와 불교를 사적으로 믿었음이 밝혀진 이상, 그의 종교 탄압이 개인적인 신앙이나 불교와 도교의 교리나 우열 문제가 아니라 종교 사원의 재산을 몰수하는 경제적 동기

* 공주대학교 한국역사교육연구소・연구교수, E-mail: d-choi@daum.net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재위 시기에 돌궐에 대한 조공과 전쟁 비용 등 지출이 많았던 반면 자연재해와 흉년으로 인한 세수 감소, 오행대포전 유통의 실패 등으로 재정수입이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교와 도교 등 종교집단의 재산 몰수가 재정수입 확보에 큰 역할을 하였다. 종교 탄압 이후 북주 무제의 활동을 살펴보면 재정수입에 집착한 이유가 북제와의 전쟁을 위한 전쟁 비용 마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북주 무제, 종교 박해, 불교 신봉(信奉), 불로장생약 복용, 비소 중독, 종교 재산 몰수, 북제와의 전쟁비용

Ⅰ. 서론
Ⅱ. 북주(北周) 무제(武帝)의 종교 탄압과 도교・불교 숭신(崇信)
Ⅲ. 도교・불교 탄압의 배경 : 재정 확보와 주・제(周齊) 전쟁
Ⅳ. 결론

Ⅰ. 서론

북주 무제가 하의 혁련발발, 북위 태무제[1] 또는 북위 태무제, 당 무종, 후주 세종과 함께(三武一宗) 불교를 탄압한 군주로 알려졌다. 노사도(盧思道)도 「후주흥망론(後周興亡論)」에서 청정(淸淨)을 중시한 불교가 근래에 재력(財力)을 낭비하자 북주 무제가 불교를 제거했으며, 이것이 이전의 황제들이 실행하지 못한 행위라고 평가하였다.[2] 이 기사 모두 북주 무제의 불교 탄압이 종교 교리보다 환속과 재력 보존이라는 경제적 목적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학계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3]

---

1) 『法苑珠林』, 唐 僧道世, 『文淵閣四庫全書』 1050冊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卷118, 「法滅第九十八之餘, 損法部」, pp.852-853, "述曰: '自佛法東流已來, 震旦已三度為諸惡王廢損佛法. 第一, 赫運勃勃, 號為夏國, 被破長安, 遇僧皆殺. 第二, 魏太武用崔皓言, 夷滅三寶, 後悔, 皓加五刑. 第三, 周武帝但令還俗. 此之三君為滅佛法, 皆不得久, 身患癰瘡, 死入地獄. 有人暴死見入地獄受大極苦, 具如別傳. 唐臨冥報記述.'"

2) 『全隋文』, 嚴可均 輯, 史建橋等 審訂 (北京: 商務印書館, 1999), 卷16, 「盧思道」, p.187, "釋氏立教, 本貴淸淨, 近世以來, 糜費財力. 下詔削除之, 亦前王所未行也." 『文苑英華』 卷751 「後周興亡論」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3) 塚本善隆, 「北周の廢佛に就いて」, 『塚本善隆著作集』 第二卷 北朝佛敎史硏究 (東京: 大東出版社, 1974), pp.597-603; 張祥光, 「論北周武帝」, 『貴州社會科學』 1981-1 (總四期) (1981), pp.57右-58左; 湯錫予, 『漢魏兩晉南北朝佛敎史』 (臺北: 鼎文書局, 1982), p.539; 任繼愈 主編, 『中國佛敎史』 第三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 p.6; 趙文潤・陳鼎中, 「西魏北周時期的關中農業」, 『陝西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2-1 (1993), pp.70-71; 趙文潤, 「西魏北周時期的社會思潮」, 『文史哲』

필자는 선행연구의 통설에 동의하지만, 『주서』「고조기」에서 북주 무제가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와 국가권력이 승인하지 않은 종교, 신앙, 제사, 즉 음사(淫祀)도 탄압했다고 기록되었으므로 통설과 달리 불교 탄압이 아니라 유가사상을 제외한 '종교 탄압'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북주 무제의 무덤(孝陵)에서 발견된 유물과 인골 분석 결과를 보면 그가 종교를 탄압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무신론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묘실의 동쪽 관곽 안에서 좌불(坐佛)이 발견된 사실에 주목하였다.[4] 이는 그가 불교 탄압과 별개로 사적으로 불교를 믿었음을 시사한다. 또 북주 무제와 황후의 인골을 분석한 결과 비소 등 독극물이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검출되었다. 이는 그가 불로장생약을 복용했음을 뜻한다.[5] 필자는 이러한 고고학 연구 결과를 접한 후 그가 '종교 탄압' 이후 생전에 불교와 도교를 믿었거나 신앙을 묵인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글에서 무제의 종교관을 재해석하고 재정적 측면에서 도교와 불교 등 종교 탄압의 양상을 분석하려고 한다.

먼저 2장에서 『주서』와 『속고승전』, 『불조통기』, 『광홍명집』, 『문원영화』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북주 무제의 도교와 불교 탄압 과정과 양상을 검토한다. 이어서 북주 무제의 무덤에서 출토된 불상과 인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의 종교 생활을 재해석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 도교와 불교 등 '종교 탄압' 배경을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지방

1993-3 (1993); 楊翠微, 「周武帝滅齊統一北方可能性探析」, 『求是學刊』 1998-3 (1998), p.86; 劉國石, 「簡論西魏北周改革: 兼論孝文改制未盡之歷史任務」, 『民族研究』 1999-3 (1999), p.60; 杨帆, 「北周武帝开发西北经济初探」, 『乌鲁木齐成人教育学院学报』 15-4 (2007), pp.7右-8右; 裴恒涛, 「北周武帝的文化政策论略」, 『遵义师范学院学报』 11-1 (2009), p.6左; 呂春盛, 「北周後期的擴張與弱黑的深化」, 『關隴集團的權力結構演變: 西魏北周政治史研究』 (臺北縣板橋: 稻鄉出版社, 2010(再版)), pp.240-243.

4) 陝西省考古研究所・咸陽市考古研究所, 「北周武帝孝陵發掘簡報」, 『考古與文物』 1997-2 (1997), p.12左.

5) 韓昇, 「北周武帝之死及其宗教文化政策」, 『學術月刊』 55-7 (2023), pp.163-178; 孫麗萍・丁汀, 「科技考古"一鍵還原"北周武帝宇文邕」, 《新華每日電訊》 2024年 3月 29日(第011版), pp.1-2; 趙茁軼 등, 「科技還原北周帝王面貌: 聚焦北周高等級墓葬考古研究新成果」, 《陝西日報》 2024年 4月 17日(第011版), p.2.

행정구역과 지방관 삭감, 화폐정책 등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선행연구의 통설을 확대하여 '종교 탄압'이 북제와의 전쟁과 관련 있음을 밝힌다.

Ⅱ. 북주(北周) 무제(武帝)의 종교 탄압과 도교・불교 숭신(崇信)

북주 무제가 처음부터 불교와 도교를 탄압하지 않았다. 천화(天和) 3년 팔월 계유일(568. 9. 17) 대덕전에 백관과 사문(沙門), 도사(道士) 등을 모아놓고 친히 『예기』를 강의하였다.[6] 불교와 도교 승려를 모아놓고 유가 경전을 강의한 점이 특이하다. 『주서』와 달리 『속고승전(續高僧傳)』에 이때 북주 무제가 선비어(鮮卑語)로 승려들에게 문신(問訊)했으나 승인(僧人)들이 선비어를 몰라 바로 대답하지 못했으나 법장(法藏)이 선비어로 대답하니 신하들이 모두 그의 응대를 좋아했다는 일화가 있다.[7] 여기에서 북주 무제와 법장이 선비어로 말할 수 있었음이 주목되며,[8] 그가 불교 승려들에게 불교 교리를 물어볼 정도로

---

6) 『周書』 卷5, 「武帝紀」 上, 天和三年八月癸酉條, p.75, "癸酉, 帝御大德殿, 集百僚及沙門・道士等親講禮記."

7) 『續高僧傳』, 道宣 撰, 郭绍林 点校 (北京: 中華書局, 2014), 卷19, 「释法藏传」, pp.702-705, "口號鮮卑, 問訊衆僧. … 挺出衆立, 作鮮卑語答. 殿廷僚衆, 咸喜斯酬."

8) 川本芳昭, 「胡族國家」, 『魏晉南北朝隋唐時代史の基本問題』 (東京: 汲古書院, 1997) (1998년 汲古書院에서 출간한 『魏晉南北朝時代の民族問題』에 제목을 바꾸어 재수록), p.401; 呂春盛, 『關隴集團的權力結構演變: 西魏北周政治史研究』 (板橋: 稻鄉出版社, 2002); 박한제, 「중화(中華)의 분열과 인근 각국의 대응: '다중적' 중화세계의 성립」, 『중국학보』 54 (2006); 渡邊信一郎 代表, 『北朝樂制史の研究: 『魏書』樂志を中心に』, 平成十六-十九年度科研費報告書 (2008); 馬曉麗・崔明德, 「對拓跋鮮卑及北朝漢化問題的總體考察」, 『中國邊疆史地研究』 22-1 (2012), p.14; 趙敏鋭, 「"舊俗"與"新制": 北朝"鮮卑特性"研究」 (雲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21), p.54; 최진열, 「동위(東魏)・북제(北齊) 수도 업(鄴) 거주 한인(漢人)의 다문화 공존: 한문화(漢文化)・호속(胡俗)・서역문화 공존과 영향」, 『중국학연구』 100 (2022), p.805.

불교에 관심이 많았거나 불교에 대한 지식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속고승전』에서 불교와 승려만 기록하여 도사들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으나 우문옹이 도사들에게 도교 경전이나 교리를 물어봤을 가능성도 있다. 즉 『주서』에서 유가 경전을 강의했다는 내용과 달리 불교와 도교의 교리도 토론 대상이었을 것이다. 이어서 그가 천화 4년 이월 무진일(569. 3. 11)에 대덕전에 관리・도사・사문을 모아 불교와 도교의 교의를 토론하도록 하였다.[9] 이어서 건덕 원년 정월 무오일(572. 2. 14)에 현도관에 행차하여 불교 승려의 강설(講說)을 들었으며 공경과 사문, 도사의 교리 논쟁이 있었다.[10] 건덕 2년 십이월 계사일(574. 1. 9)에 신하, 사문, 도사 등을 모아 3교(三敎)의 순서를 유교, 도교, 불교로 정하였다.[11] 천화 3년 불교와 도교 승려들을 모아 놓고 유가 경전인 『예기』를 친히 강론한 사실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유교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둔 조치가 이미 최소한 6년 전부터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불교를 가장 낮은 지위에 놓은 의도가 중국의 토착 종교인 도교의 우대와 외래종교인 불교의 차별이었다. 이후 건덕 3년 오월 병자일(574. 6. 21)에 불교와 도교를 탄압하고 경전과 상(像)을 모두 없애고 사문과 도사를 민(民)으로 환속하라고 명령하였다. 아울러 일체의 음사를 모두 금하였으며 예전(禮典)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하였다.[12] '음사(淫祀)'가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개인들의 종교나 신앙,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 등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아마도 유가사상을 제외한 모든 종교와 신앙, 제사를 없앴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불교 탄압으로 알려진 이 조치를 다양한 종교

9) 『周書』 卷5, 「武帝紀」 上, 天和四年二月戊辰條, p.76, "戊辰, 帝御大德殿, 集百僚・道士・沙門等討論釋老義."

10) 『周書』 卷5 「武帝紀」 上, 建德元年春正月戊午條, p.79, "建德元年春正月戊午, 帝幸玄都觀, 親御法座講說, 公卿道俗論難, 事畢還宮."

11) 『周書』 卷5, 「武帝紀」 上, 建德二年十二月癸巳條, p.83, "十二月癸巳, 集羣臣及沙門・道士等, 帝升高座, 辨釋三教先後, 以儒教為先, 道教為次, 佛教為後."

12) 『周書』 卷5, 「武帝紀」 上, 建德三年五月條, p.85, "丙子, 初斷佛・道二教, 經像悉毁, 罷沙門・道士, 並令還民. 並禁諸淫祀, 禮典所不載者, 盡除之."

를 탄압한 조치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불교만 탄압한 것처럼 오인되는 이유가 주로 불교를 탄압한 사료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수서』「경적지」에서 촉군(蜀郡)의 사문 위원숭(衛元嵩)이 불교의 승도(僧徒)가 너무 많다고 상소하자 무제가 불교를 폐훼(廢毁)했다고 기록하였다.[13] 위원숭의 상서(上書)가 불교 탄압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또 불교 측의 주장을 담은『광홍명집』에 따르면 북주 무제가 조서를 내려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 불교가 서역에서 발생하여 다른 지역을 거쳐 동하(東夏)에 전해졌다. 원래의 그 풍속교화를 찾아보면 중국과 다르고 어긋났다. 한(漢)·위(魏)·진(晉) 시대에 있는 듯 없는 듯하였으나 오호(五胡)가 태평성대를 어지럽히자 불교가 바야흐로 성해졌다. 짐이 오호가 아니므로 마음으로 공경하여 섬기지 않는다. 바른 가르침(正敎)이 아니므로 불교를 없앤다.[14]

위의 인용문에서 북주 무제가 자신이 오호가 아니므로 불교를 탄압할 조건이 되며, 외래종교인 불교가 바른 가르침(正敎)이 아니므로 탄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주 무제가 원래 흉노 부족의 하나인 우문부(宇文部)에서 비롯되어 우문씨로 칭해졌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우문씨의 종족(種族)이 흉노(匈奴)인지 선비(鮮卑)인지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15] 양자 모두 오호에 속한다. 따라서 그가 자신이 오호가 아니라는 말이 실제 상황과 다르므로 그의 주장이 억지에 가깝다. 그렇다고 해도 그가 불교가 바른 가르침이 아니며 통치와 사회에 저해되는 종교라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

13)『隋書』卷35,「經籍志」4, p.1099, "至周武帝時, 蜀郡沙門衛元嵩上書, 稱僧徒猥濫, 武帝出詔, 一切廢毁."

14)『廣弘明集』卷10,「辯惑篇」第二之六 周高祖巡鄴除殄佛法條, p.160上, "詔曰: '佛生西域, 寄傳東夏. 原其風教, 殊乖中國. 漢魏晉世, 似有若無, 五胡亂治, 風化方盛. 朕非五胡, 心無敬事. 既非正教, 所以廢之.'"

15) 周一良,「論宇文周之種族」,『周一良集』第一卷(魏晉南北朝史論) (瀋陽: 遼寧教育出版社, 1998).

북주 무제의 종교 탄압이 북주 영토 안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그가 건덕 6년 북제를 평정한 후 정복지에서 폐불(廢佛) 정책을 추진하였다. 『불조통기(佛祖統紀)』에서 "[건덕]6년에 북제를 정벌하여 멸한 후에 북제 영토에 있는 불교의 경전과 불상을 훼손하였다. 이때 환속한 중과 비구니가 300여만 명이었다"[16]라고 기록하였다. 『광홍명집(廣弘明集)』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제(帝)가 잔인하고 포학한 행위를 한 지 3년이 지나 관롱(關隴)의 불법이 불교 승려들의 주멸로 거의 다 없어졌다. 북제를 이긴 후에 돌아와 이전의 탄압조치에 따라 불교를 탄압하였다. 그때 동위와 북제의 동쪽 땅에서 불교를 숭상하였다. 이미 갖추어진 사묘(寺廟)가 4만 곳이었으며 모두 왕공(王公)에게 하사하여 제택(第宅)으로 삼았다. 불교의 오중(五衆) 300만 명을 줄여 모두 군민(軍民)으로 되돌렸으며 편호(編戶)로 환속시켰다. 불상을 녹이고 경전을 불사르고 삼보복재(三寶福財)를 문서나 장부에 기록하여 관에 적몰했으며 곧 상사(賞賜)로 나뉘어 흩어져서 모두 써서 없어졌다.[17]

위의 인용문에 언급된 오중(五衆)이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 식차마나(式叉摩那), 사미(沙彌), 사미니(沙彌尼) 등 불교 승려와 예비 승려를 가리키므로 출가하거나 출가 예정인 300만 명을 환속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불조통기』에 기록된 숫자와 일치한다. 총본선륭(塚本善隆)이 위에 언급된 사묘 4만과 승·니 300만 명이 북주·북제 두 지역의 합계이며, 대부분이 옛 북제 지역의 승려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18] 그러나 『불조통기』와 『광홍명집』에서 모

16) 『佛祖統紀』, 大正原版『大藏經』 第49冊, 史傳部一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3), 卷38, p.358, "[建德]六年, 伐齊滅之, 幷毁齊境佛教經像. 時僧尼反服者三百餘萬."

17) 『廣弘明集』 卷10, 「辯惑篇」 第二之六 周祖平齊召僧敍廢立抗拒事條, p.159下, "帝已行虐三年, 關隴佛法誅除略盡. 既克齊境, 還準毁之. 爾時魏齊東川佛法崇盛. 見成寺廟出四十千, 並賜王公充為第宅. 五眾釋門減三百萬, 皆復軍民, 還歸編戶. 融刮佛像, 焚燒經教, 三寶福財, 簿錄入官, 登即賞賜分散蕩盡."

18) 塚本善隆, 앞의 글, p.622.

두 북제의 옛 땅에서 취한 불교 탄압조치였음을 명시했기 때문에 사묘 4만 곳의 폐쇄와 승・니 300만 명의 환속이 모두 북제에서 일어났음이 분명하다.

또 위의 인용문에서 불교에서 압수한 재물을 왕공이나 신하들에게 하사했다고 기록하였다. 이는 『주서』의 내용과 다르다. 북주 무제가 건덕 6년 정월 신축일(577. 3. 2)에 북제의 옛 수도 업(鄴)의 동산(東山), 남원(南園), 삼대(三臺)를 훼손하고 건물의 기와와 나무 등을 백성에게 하사했으며 산원(山園)의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하였다.[19] 오월 무술일(577. 6. 27)에 병주(幷州)와 업의 궁전과 건물을 허물고 잡물을 궁민(窮民)에게 나누어 하사하였다.[20]

『주서』와 불교 승려가 기록한 『불조통기』, 『광홍명집』에서 북주 무제가 북주뿐만 아니라 새로 정복한 북제의 옛 땅에서 불교를 탄압하고 재산을 몰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북주 무제의 종교 탄압 정책을 보면 그가 무신론자이거나 유・불・도 삼교 가운데 유교를 최상위에 두었으므로 중국의 전통사상인 유가 사상만 신봉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무덤인 효릉이 발굴된 후 그의 언행불일치를 증명하는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효릉이 황제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일반 신하들의 무덤과 비슷하거나 작았으며[21] 부장품이 북제 황제릉의 부장품보다 많지 않았다. 이는 평소에 검소함을 강조하고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지 말 것을 유언했기 때문에[22] 능총봉토(陵冢封土), 능 앞의 석각(石刻)과 능침

19) 『周書』 卷6, 「武帝紀」 下, 建德六年春正月辛丑條, p.101, “辛丑, 詔曰: ‘僞齊叛渙, 竊有漳濱, 世縱淫風, 事窮彫飾. 或穿池運石, 為山學海; 或層臺累構, 概日凌雲. 以暴亂之心, 極奢侈之事, 有一於此, 未或弗亡. 朕非食薄衣, 以弘風教, 追念生民之費, 尚想力役之勞. 方當易茲弊俗, 率歸節儉. 其東山・南園及三臺可並毁撤. 瓦木諸物, 凡入用者, 盡賜下民. 山園之田, 各還本主.’”

20) 『周書』 卷6, 「武帝紀」 下, 建德六年五月戊戌條, p.103, “戊戌, 詔曰: ‘京師宮殿, 已從撤毁. 并・鄴二所, 華侈過度, 誠復作之非我, 豈容因而弗革. 諸堂殿壯麗, 並宜除蕩, 甍宇雜物, 分賜窮民. 三農之隙, 別漸營構, 止蔽風雨, 務在卑狹.’”

21) 陝西省考古研究所・咸陽市考古研究所, 앞의 글, pp.27左-27右.

22) 『周書』 卷6, 「武帝紀」 下, 宣政元年條, p.107, “朕平生居處, 每存菲薄, 非直以訓子

(陵寢) 건축 등의 유물을 발견할 수 없었다.[23] 학자들이 북주 무제의 뼈를 분석한 결과 그의 대퇴골에서 흑색 반점을 발견하였고 유골 표본의 33종 미량원소를 분석한 결과 비소 함량이 같은 시대 평민이나 귀족의 평균 수준보다 10배 이상 높음을 발견하였다. 그의 병이나 증상과 관련된 사료 검토와 유체의 생화학, DNA 검측을 통해 그가 죽은 원인을 만성 비소 중독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24] 위진남북조시대 지배층이 단약(丹藥)을 복용하여 불로장생을 추구하였으므로[25] 그의 비소 중독이 도교의 불로장생술과 관련 있는 단약을 과도하게 복용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이는 건덕 3년(574)에 불교와 더불어 도교도 탄압했던 우문옹의 종교 정책과 정반대 행동이다. 즉 그가 공식적으로 불교와 도교를 탄압했으나 사적으로 이 두 종교 가운데 최소한 하나를 믿었음을 시사한다. 그가 최소한 불로장생술과 연단술에 능한 도교의 도사를 만나 꾸준히 불로장생의 약을 마셨으며 그 결과 비소 중독에 걸린 것이다. 이는 그가 도교의 정수인 불로장생 사상을 믿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행동이었다. 따라서 북주 무제의 비소 중독이 그가 도교를 믿었으며 최소한 불로장생 사상을 신봉했고 공개적인 도교 탄압과 달리 사적이고 비공개적으로 도교의 승려인 도사들과 교류했던 증거이다.

이와 더불어 무제와 황후 아사나씨(阿史那氏)의 부부합장묘인 효릉 묘실 동쪽 관에서 좌불(坐佛) 한 개가 발견되었다.[26] 묘실의 두 관 가운데 서쪽의 관저(棺底) 흔적이 남북 2.24~2.43m, 동서 너비 0.95m이고, 동쪽 관(棺) 길이 2.6m, 너비 0.92m였다.[27] 발굴보고서

孫, 亦乃本心所好. 喪事資用, 須使儉而合禮, 墓而不墳, 自古通典. 隨吉即葬, 葬訖公除. 四方士庶, 各三日哭. 妃嬪以下無子者, 悉放還家."

23) 陝西省考古研究所・咸陽市考古研究所, 앞의 글, pp.27左-27右.

24) 韓昇, 앞의 글, pp.163-178; 孫麗萍・丁汀, 앞의 글, p.2; 趙茁軼 等, 앞의 글, p.2.

25) 孫麗萍・丁汀, 앞의 글, p.2.

26) 陝西省考古研究所・咸陽市考古研究所, 앞의 글, p.12左.

27) 같은 글, pp.11右-12左.

에서 어떤 관이 무제의 관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불상이 발견된 동쪽 관이 무제의 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아내 아사나씨가 돌궐 사근의 딸이며 천화 3년(568)에 북주에 도착하여 황후로 책립되었다.[28] 『수서』「돌궐전」에 따르면 돌궐의 타스파르(佗鉢) 카간이 북제의 사문 혜림(惠琳)의 포교로 불교를 믿게 되었다.[29] 타스파르 카간이 사근의 아우였으므로[30] 아사나씨가 북주에 와서 황후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돌궐 본토에서 타스파르 카간 등이 불교를 처음으로 믿었다. 즉 시기상 아사나씨가 북주의 황후가 되기 전에 불교를 접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불상이 발견된 동쪽 관의 주인이 무제였을 것이다. 이는 그가 공개적으로 불교를 탄압했지만, 비공식적으로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유족이나 신하들이 관 주변에 불상을 놓았다는 뜻이다.[31] 요컨대 북주 무제의 무덤인 효릉에서 발견된 그의 뼈와 불상에서 그가 생전에 도교의 불로장생술을 믿고 도사들을 가까이했으며 불교를 비밀리에 또는 사적으로 믿었음을 알 수 있다.

---

28) 『周書』 卷5, 「武帝紀」 上, 天和三年條, p.75, "三月癸卯, 皇后阿史那氏至自突厥."; 『周書』 卷9, 「皇后・武帝阿史那皇后傳」, p.144, "太祖方與齊人爭衡, 結以為援. 俟斤初欲以女配帝, 既而悔之. 高祖即位, 前後累遣使要結, 乃許歸后於我. 保定五年二月, 詔陳國公純・許國公宇文貴・神武公竇毅・南(陽)[安]公楊荐等, 奉備皇后文物及行殿, 并六宮以下百二十人, 至俟斤牙帳所, 迎后. 俟斤又許齊人以婚, 將有異志. 純等在彼累載, 不得反命. 雖諭之以信義, 俟斤不從. 會大雷風起, 飄壞其穹廬等, 旬日不止. 俟斤大懼, 以為天譴, 乃備禮送后. (及)純等設行殿, 列羽儀, 奉之以歸. 天和三年三月, 后至, 高祖行親迎之禮."

29) 『隋書』 卷84, 「北狄・突厥傳」, p.1865, "時佗鉢控弦數十萬, 中國憚之, 周・齊爭結姻好, 傾府藏以事之. 佗鉢益驕, 每謂其下曰 : 「我在南兩兒常孝順, 何患貧也!」齊有沙門惠琳, 被掠入突厥中, 因謂佗鉢曰 : 「齊國富強者, 為有佛法耳.」遂說以因緣果報之事. 佗鉢聞而信之, 建一伽藍, 遣使聘于齊氏, 求淨名・涅槃・華嚴等經, 并十誦律. 佗鉢亦躬自齋戒, 遶塔行道, 恨不生內地."

30) 『周書』 卷50, 「異域下・突厥傳」, p.911, "俟斤死, 弟他鉢可汗立. 自俟斤以來, 其國富彊, 有凌轢中夏志."

31) 동쪽의 관이 북주 무제의 관이라는 필자의 주장에 반대한다면 황후 아사나씨의 관이라는 뜻인데, 이 경우에도 북주 무제가 아사나씨가 불교를 믿는 것을 방관하거나 묵인했음을 뜻한다.

Ⅲ. 도교・불교 탄압의 배경 : 재정 확보와 주・제(周齊) 전쟁

1. 만성적인 재정 악화

북주 무제의 종교탄압이 부국강병을 위한 조치였음이 『광홍명집』에 실린 노사도의 서정기(西征記)에 기록되었다. 이 기사를 검토해 보자.

> 노사도가 범양(范陽) 사람이다. 제(北齊)에 벼슬하여 황문랑(黃門郞)이 되었다. 주 무제가 제를 평정하자 경사(京師)를 방문하여 서정기를 지었다. 대략 "요흥(姚興)이 불법을 좋아하였고 라집(羅什)이 경론(經論)을 번역하고, 불도(佛圖)가 해내(海內)에 두루 미쳤으니, 승・니가 된 사녀(士女)가 열 가운데 여섯 또는 일곱이었고 공사(公私)에 낭비하여 해마다 거만(巨萬)을 헤아렸다. 제가 홀로 원략(遠略)을 헤아려 없앴으니, 강국부민(強國富民)의 상책(上策)이다"라고 말했다.[32]

위의 인용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십육국시대 후진의 영토인 관롱 일대에서 라집, 즉 쿠마라지바의 불경 번역과 포교 이후에 불교가 퍼져 백성들의 60~70%가 출가하였고 불교를 믿는 데 거만(巨萬)에 해당하는 물자를 낭비하였다. 반면 우문옹이 불교를 없애는 정책을 취하여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다. 노사도가 노식(盧植) 이후 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범양 노씨(范陽盧氏) 집안 출신이었으므로 불교를 적대시하여 불교를 없애는 조치를 상책(上策)이라고 간주했을 수 있다. 『광홍명집』 「간주고조사태승표(諫周高祖沙汰僧表)」에서 "승려들 가운데 병사를 찾고 탑묘 아래(塔廟之下)에서 땅을 취한다"는 구절[33]에서도 당시 불교

32) 『廣弘明集』 卷7, 「敍列代王臣滯惑解」, p.86上, "二十四盧思道, 范陽人. 仕齊為黃門郎. 周武平齊詣京師, 作西征記. 略云: '姚興好佛法, 羅什譯經論, 佛圖遍海內, 士女為僧尼者十六七, 糜費公私, 歲以巨萬. 帝獨運遠略罷之, 強國富民之上策也.'"

계가 불교 탄압이 부국강병을 위한 조치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국강병만이 불교를 비롯한 종교 탄압의 이유가 아니었다. 선행연구에서 간과했지만, 북주 무제 시기에 재정수입이 부족하였다. 이때부터 돌궐에 바치는 '조공'의 재정 부담 때문이다. 『주서』「돌궐전」에서 타스파르 카간(Taspar qaghan, 他鉢可汗)이 즉위한 후 "북주 조정에서 이미 돌궐과 화친하여 해마다 명주(繒), 명주솜(絮), 비단(錦), 무늬 있는 비단(綵)을 십만 단씩 주었다"[34]라고 기록하였다. 북주가 돌궐에 바치는 각종 비단 십만 단이 북주 본토인 관롱과 하동 지역 호수의 34.8% 또는 파촉을 포함한 북주 전체의 호수로 추정되는 총 호수의 27.9%로부터 거두는 비단이었다. 또 "경사(수도 장안)에 머무는 돌궐인에게 예로 대우했는데,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는 사람이 늘 천 명을 헤아렸다"[35]라는 『주서』「돌궐전」의 대목에서 장안에 머무르는 1천 명의 돌궐인들에게 공급하는 고기 757,866.4근이 북주 조정이 관리나 외교사절에 제공하는 고기의 최소 23.7%, 최대 47.4%에 해당한다. 또 다른 추산에 따르면, 1년에 양 18,250마리, 소 1,825마리, 미(米) 2,920석을 제공해야 했다. 이는 돌궐인에게 제공하는 비단옷을 제외한 수치이다.[36] 돌궐에 바치는 비단이 북주 1년 비단 수입의 27.9% 또는 34.8%에 해당하므로 북주 재정에 큰 타격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비용 삭감과 재정 수입 확보 조치가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사건, 즉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건덕 원년 삼월 계해일(572. 4. 19) 조서에서 지난해 가을, 즉 천화 6년 가을에 황재(蝗災)로 흉년이 들었다고 밝혔다.[37] 같은 해 겨

33) 『廣弘明集』 卷24 「僧行篇」第五之二, 「諫周高祖沙汰僧表」, "疑謂求兵於僧眾之間, 取地於塔廟之下."

34) 『周書』 卷50, 「異域下・突厥傳」, p.911, "朝廷既與和親, 歲給繒絮錦綵十萬段."

35) 『周書』 卷50, 「異域下・突厥傳」, p.911, "突厥在京師者, 又待以優禮, 衣錦食肉者, 常以千數."

36) 최진열, 「서위북주(西魏北周)와 돌궐의 견마무역(絹馬貿易)의 실상: 서위북주의 저자세가 초래한 재정 부담」, 『인문학연구』 44 (2025), pp.190-196.

37) 『周書』 卷5, 「武帝紀」 上, 建德元年三月癸亥條, p.80, "詔曰: '民亦勞止, 則星動於

울에 우역(牛疫)이 크게 퍼져 소 10마리 가운데 여섯 또는 일곱 마리가 죽었다.[38] 이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때 북주가 소의 60-70%를 잃었다. 죽은 소의 수를 다시 원래의 수로 회복하는 데 몇 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또 북주 농민들이 우경(牛耕)을 할 수 없게 되어 다음 해 또는 그다음 해 농작물 수확이 줄어들었음이 틀림없다. 이에 따라 북주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의 양도 줄어들었다.

또 전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자 건덕 3년에 관청과 백성, 도속(道俗)에게 저장한 속(粟)과 맥(麥)을 팔라는 명령을 내렸다.[39] 이 조치에서 관청뿐만 아니라 백성과 종교 단체에 곡물을 방출하라는 지시가 주목된다. 이는 국가의 창고에 저장된 곡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며 세금으로 거둔 곡물이 적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다만 이 조서에 언급된 도속이 출가한 사람과 세속의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당시 북주 조정이 불교 사원에 대량의 곡물이 있었음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종교재산 몰수를 결심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우선 북주 무제가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줄이는 조치를 실행하였다. 천화 6년(571) 구월에 액정의 사이악(四夷樂)과 후궁 나기(羅綺) 공인(工人) 500여 인을 없앴다.[40] 이는 궁중의 인력을 줄인 조치였다. 건덕 2년(573)에 옹주(雍州)의 8군을 없애고 경조・풍익・부풍・함양 등 군에 합병하였다.[41] 8개 군을 없앰으로써 태수(太守) 등 지방관의 수를 줄이고 군청 유지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같은 해에 육부(六府) 제사(諸司)의 중대부(中大夫) 이하 관원을 없애고 네 관청

天; 作事不時, 則石言於國. 故知為政欲靜, 靜在寧民; 為治欲安, 安在息役. 頃興造無度, 徵發不已, 加以頻歲飢旅, 農畝廢業. 去秋災蝗, 年穀不登, 民有散亡, 家空杼軸. 朕每旦恭己, 夕惕兢懷. 自今正調以外, 無妄徵發. 庶時殷俗阜, 稱朕意焉.'"

38)『周書』卷5,「武帝紀」上, 天和六年條, p.79, "是冬, 牛大疫, 死者十六七."

39)『周書』卷5,「武帝紀」上, 建德三年春正月丙子條, p.83, "詔以往歲年穀不登, 民多乏絕, 令公私道俗, 凡有貯積粟麥者, 皆准口聽留, 以外盡糴."

40)『周書』卷5,「武帝紀」上, 天和六年九月癸酉條, p.79, "癸酉, 省掖庭四夷樂・後宮羅綺工人五百餘人."

41)『周書』卷5,「武帝紀」上, 建德二年二月條, p.82, "省雍州內八郡, 併入京兆・馮翊・扶風・咸陽等郡."

(四司)을 설치하고 하대부(下大夫)를 관장(官長), 상사(上士)를 차관으로 삼았다.[42] 반면 동궁 관원을 늘렸다.[43] 중대부 이하의 관리를 없앰으로써 봉록 등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앙과 지방 관청과 관리 수를 줄이고 백성들에게 사치생활을 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절약을 강조하였다. 건덕 2년(573) 구월에 호화로운 혼례를 규제하는 조서를 반포하였고[44] 다음 해인 건덕 3년 정월에 15세의 남성과 13세 이상의 여성부터 환과(鰥寡)까지 결혼시키고 절검에 힘쓰게 하라고 지시함[45]과 동시에 스스로 검소하게 생활하였다.[46] 그가 남긴 유조(遺詔)를 보면 자신의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라고 당부하였다.[47] 우문옹의 무덤이 1993년 8월 2일에 산시성(陝西省) 셴양시(咸陽市) 웨이청구(渭城區) 디장샹(底張鄕) 천마춘(陳馬村) 동남쪽의 농지에서 발견되었다. 효릉의 부장품이 다수의 채회도용(彩繪陶俑)이며, 작품이 조악하고 북주 무제의 검소한 생활상을 반영하였다.[48] 이러한 그의 검소와 절약이 관롱 지역의 척박함과 백성들의 가난 때문에 재력과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49] 우문옹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면,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돌궐에 조공을 바치며 부족한 재정 수입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

42) 『周書』 卷5, 「武帝紀」 上, 建德二年三月癸巳條, p.82, "癸巳, 省六府諸司中大夫以下官, 府置四司, 以下大夫為之官長, 上士貳之."

43) 『周書』 卷5, 「武帝紀」 上, 建德二年夏四月己亥條, p.82, "夏四月己亥, 祠太廟. 丙辰, 增改東宮官員."

44) 『周書』 卷5, 「武帝紀」 上, 建德二年九月戊寅條, p.82, "詔曰: '政在節財, 禮唯寧儉. 而頃者婚嫁競為奢靡, 牢羞之費, 罄竭資財, 甚乖典訓之理. 有司宜加宣勒, 使咸遵禮制.'"

45) 『周書』 卷5, 「武帝紀」 上, 建德三年春正月癸酉條, p.83, "癸酉, 詔: '自今已後, 男年十五, 女年十三已上, 爰及鰥寡, 所在軍民, 以時嫁娶, 務從節儉, 勿為財幣稽留.'"

46) 裴恒濤, 앞의 글, p.5右.

47) 『周書』 卷6, 「武帝紀」 下, 宣政元年六月丁酉條, pp.106-107, "六月丁酉, 帝疾甚, 還京. 其夜, 崩於乘輿. 時年三十六. 遺詔曰: 「… 朕平生居處, 每存菲薄, 非直以訓子孫, 亦乃本心所好. 喪事資用, 須使儉而合禮, 墓而不墳, 自古通典. 隨吉即葬, 葬訖公除. 四方士庶, 各三日哭. 妃嬪以下無子者, 悉放還家.」"

48) 陝西省考古研究所・咸陽市考古研究所, 앞의 글, pp.8左-28右.

49) 袁剛, 「論周武帝"取亂侮亡"滅北齊」, 『許昌師專學報』 19-4 (2000), p.69左.

2. 화폐 주조차익의 감소

북주 무제가 불교와 도교 사원과 재산을 몰수한 조치와 더불어 건덕 3년 유월 임자일(574. 7. 27)에 오행대포전(五行大布錢)을 주조하고 유통시켰다. 그리고 오행대포전 1전을 오수전 10개의 비율로 유통시켰으며 이전에 주조한 포천전(布泉錢)과 함께 사용하였다.[50] 북주가 처음에 북위와 서위의 오수전(五銖錢)을 사용하였다.[51] 이후 무제 보정 원년(保定元年, 561)에 포천전을 주조하여 포천전 1전을 오수전 5개의 가치로 정하고 오수전과 함께 사용하였다.[52] 따라서 오행대포전 1개가 북위 또는 서위에서 사용한 오수전 10개와 동등한 가치로 정한 뒤에 오수전, 포천전과 함께 오행대포전을 사용하게 한 것이다. 중국전폐대사전편집위원회에서 편찬한 『중국전폐대사전』에서 포천전의 무게를 3.5g 전후라고 기록하였다.[53] 오행대포전의 지름이 2.72~2.85㎝, 구멍의 지름 0.8㎝, 두께 0.2㎝, 무게 4.3~5.1g이다. 이 동전의 무게를 4~5g으로 보기도 한다.[54] 그런데 허난성(河南省) 위저우시(禹州市)에서 출토된 3,500매의 동전 가운데 오행대포전이 500매였으므로 통계적으로 오행대포전의 크기와 무게의 편차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름 2.72~2.85㎝, 무게 5.1g이었으므로[55] 이것이 오행대포전의 규격에 가까울 것이다. 현재까지 출토된 오행대포전이 오수전이나 포천전보다 무겁지만 지름이나 구멍의 지름이 거의 차이가 없다. 포천

50) 『周書』 卷5, 「武帝紀」 上, 建德三年六月壬子條, p.85, "壬子, 更鑄五行大布錢, 以一當十, 與布泉錢並行."

51) 『隋書』 卷24, 「食貨志」, p.691, "後周之初, 尚用魏錢."

52) 『周書』 卷5, 「武帝紀」 上, 保定元年秋七月戊申條, p.65, "更鑄錢, 文曰 '布泉', 以一當五, 與五銖並行."; 『隋書』 卷24, 「食貨志」, p.691, "及武帝保定元年七月, 及更鑄布泉之錢, 以一當五, 與五銖並行."

53) 中國錢幣大辭典編纂委員會 編, 『中國錢幣大辭典: 魏晉南北朝隋編』 (北京: 中華書局, 2003), p.199.

54) 朱安祥, 「大收商估之利: 北周貨幣政策初探」, 『河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37-4 (2019), p.18右.

55) 張堯成・張石恒, 「河南禹州市出土北周錢幣」, 『中國錢幣』 2011-1 (2011), pp.55左-55右.

전이 지름이나 무게가 오수전과 거의 같고 오행대포전의 무게가 대체로 오수전의 2개에 해당한다. 따라서 포천전이 오수전 5개, 오행대포전이 오수전 10개라는 교환 비율이 정부의 강요일 뿐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비율이 아니었다. 무게만 보면 오행대포전이 오수전 2개라는 교환 비율이 적당했다. 오행대포전과 오수전의 교환 비율을 1:50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56] 따라서 포천전과 오행대포전을 유통하면 물가가 인상되거나 각각 오수전의 1/5이나 1/10 또는 1/50의 비율로 거래될 수밖에 없었다. 『수서』「식화지」에서 이 화폐의 주조와 통용 목적이 상고의 이익을 거두려는 의도였다고 기록하였다.[57] 상고(商估)가 사전적으로 상인과 상업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으므로 이는 오행대포전을 통용시켜 화폐주조 차익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주서』「고조기」에 따르면, 다음 해인 건덕 4년(575) 칠월에 관중(關中) 밖으로 오행대포전이 유출되거나 관중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포천전의 관중 유입만 허용하고 유출을 금지하였다.[58] 그런데 『수서』「식화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건덕]4년 칠월에 또 변경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도주(盜鑄)하였다. 이에 오행대포가 4개 관을 출입하지 못하게 금지하였고 포천전이 4관 안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년 정월에 포천전이 점차 가치가 하락하여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자 결국 없앴다. 처음에 사주(私鑄)하는 자를 교형(絞刑)에 처했고 종범을 먼 곳에 보내 호로 삼았다.[59]

---

56) 朱安祥, 앞의 글, pp.18右-19左.

57) 『隋書』 卷24, 「食貨志」 貨・後周, p.691, “建德三年六月, 更鑄五行大布錢, 以一當十, 大收商估之利, 與布泉錢並行.”

58) 『周書』 卷6, 「武帝紀」 下, 建德四年秋七月己未條, p.92, “己未, 禁五行大布錢不得出入關, 布泉錢聽入而不聽出.”

59) 『隋書』 卷24, 「食貨志」, p.691, “四年七月, 又以邊境之上, 人多盜鑄, 乃禁五行大布, 不得出入四關, 布泉之錢, 聽入而不聽出. 五年正月, 以布泉漸賤而人不用, 遂廢之. 初令私鑄者絞, 從者遠配爲戶.”

위의 인용문에서 관중에서 유통되는 오행대포전을 관중 밖으로 유출하거나 관중 밖에서 유통되는 오행대포전을 관중 안으로 유입하지 못하게 한 이유를 도주(盜鑄), 즉 백성들이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오행대포전을 몰래 만들어 유통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오행대포전 1개가 오수전 10개에 해당하므로, 오행대포전을 만들어 오수전 10개와 바꾸면 더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불법으로 주조(盜鑄)하는 오행대포전이 북주에서 만드는 오행대포전보다 구리의 함량이 적거나 크기를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화폐주조이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오행대포전의 무게가 0.8g이나 차이 나는 현상에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사주(私鑄), 즉 불법 주조한 주범을 교형, 종범을 귀양보내는 형벌을 실행했으나 불법 주조가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오행대포전이 북주의 본토인 관중 안으로 유입되면 장안과 관중에서 만든 오행대포전의 유통에 방해가 되었다. 이는 오행대포전의 화폐주조차익을 줄이는 역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관중 밖에서 백성들이 불법으로 만든 오행대포전의 관중 유입을 차단하여 조정에서 만든 오행대포전을 관중에서만이라도 통용시켜 일정량의 화폐주조차익을 얻으려고 하였다.

오행대포전의 불법 주조(盜鑄)가 성행함에 따라 북주 조정이 이전에 만든 포천전이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되면서 “포천전 1개 = 북위 오수전 5개”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결국 건덕 5년에 포천전의 유통을 중지하였다. 즉, 위의 인용문에서 밝히지 않았으나 포천전이 오수전의 5개, 오행대포전이 10개에 해당하는 가치로 정했지만, 무게가 오수전의 5배 또는 10배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금속의 무게가 금속화폐의 가치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무게보다 많은 가치로 정함으로써 더 많은 화폐주조차익을 거두려는 북주 무제의 조치가 백성들의 불법 화폐 주조와 유통 때문에 실패하였다.

3. 종교집단 재산 몰수와 전쟁

북주 무제의 종교 탄압보다 조금 늦게 실시한 화폐 정책이 실패하면서 재정이 부족한 북주 조정에 불교와 도교 사원과 농토를 몰수하고 승려들을 환속시키고 불교 사원에 예속된 승지호(僧祇戶)와 불도호(佛圖戶)를 해방하여 조세와 요역을 부담하는 편호(編戶)로 편제하여 재정 수입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었다.[60]

먼저 북주가 불교재산을 몰수하여 얻은 재정수입을 살펴보자. 왕중락(王仲犖)이 북주시대 불교 사원이 1만여 소에 달하였고 승려는 약 1백만에 가까웠다고 추산하였다.[61] 서위북주가 실(室)에 견(絹) 1필 미만, 면(綿) 8량(兩), 속(粟) 5곡(斛)을 징수하고 정(丁)에게 실(室)의 절반을 징수하였다.[62] 문맥상 '실(室)'이 부부로 구성된 호(戶), 정(丁)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성을 가리킨다. 승려 100만 명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정이라고 가정하면 북주가 이들로부터 거둘 수 있는 조세가 견 50만 필, 면 400만 량, 속 250만 곡이었다. 만약 승려들이 결혼하면 이 액수의 배를 더 세금으로 거둘 수 있었다. 수 양제 시기인 609년 호구 통계에서 북주와 북제 인구 비율이 불교 사원 및 승려 비율과 같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북주 영토의 인구가 북제의 54.2%이고,[63] 『광홍명집』에서 북제 땅에서 몰수한 절이 4만 소, 중과 비구니가 300만 명이므로, 인구 비율과 사원의 승려 비율이 같

60) 塚本善隆, 앞의 글, pp.597-603; 王仲犖, 『魏晉南北朝史』 下冊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0), pp.870-872; 湯錫予, 『漢魏兩晉南北朝佛教史』, p.539; 任繼愈 主編, 『中國佛教史』 第三卷, p.6; 趙文潤·陳鼎中, 「西魏北周時期的關中農業」, pp.70-71; 劉國石, 「簡論西魏北周改革: 兼論孝文改制未盡之歷史任務」, p.60; 袁剛, 「論周武帝"取亂侮亡"滅北齊」, p.69左; 呂春盛, 「北周後期的擴張與弱點的深化」, pp.240-243.

61) 王仲犖, 앞의 책, p.624.

62) 『隋書』 卷24, 「食貨志」, p.679, "司賦掌功賦之政令. 凡人自十八以至六十有四, 與輕癃者, 皆賦之. 其賦之法, 有室者, 歲不過絹一匹, 綿八兩, 粟五斛; 丁者半之. 其非桑土, 有室者, 布一匹, 麻十斤; 丁者又半之. 豐年則全賦, 中年半之, 下年一之, 皆以時徵焉. 若艱凶弛, 則不徵其賦."

63) 최진열, 「서위북주(西魏北周)와 돌궐의 견마무역(絹馬貿易)의 실상: 서위북주의 저자세가 초래한 재정 부담」, p.193.

다고 가정하면 북주의 불교사원이 21,680소, 환속한 남녀 승려가 162.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왕중락의 추산보다 절이 배, 승려 수가 약 62.5%나 더 많다. 이 추산에 따라 환속한 승려로부터 거둘 수 있는 수입이 견 81.3만 필, 면 650.4만 량, 속 406.5만 곡으로 추산된다. 어떤 수치이건 이는 기존의 편호로부터 거둔 세금과 별도로 옛 승려들로부터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재정수입의 최댓값이었다.

이어서 도교이다. 『수서』「지리지」에서 한중 사람들이 도교를 높이 받들어 존중하였으며, 이것이 장로지풍(張魯之風)이라고 서술하였다.[64] 장로는 후한말에 파촉 지역에서 활동한 오두미도 교주였다. 장로가 조조에 항복하여 중원으로 이주했지만, 여전히 한중에서 도교가 유행했으며 수나라 때에도 여전히 한중군 사람들이 도교를 믿었음을 보여준다. 『수서』「지리지」에서 서성・방릉・청화・통천・탕거 5군이 한중과 풍습이 비슷하다고 기록하였다.[65] 또 촉군(蜀郡)・임공(臨邛)・미산(眉山) 등 16군도 한중군과 풍습이 유사하였다.[66] 파촉 지역 21군의 풍속이 한중군과 같았으므로 이 지역 사람들도 도교를 믿었을 것이다. 수나라 때가 북주와 가까운 시기였으므로 북주 시대에도 파촉 지역의 많은 도교 사원의 재산과 환속한 도사들에게서 거둔 조세를 포함하면 북주 조정이 막대한 재정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67]

다음으로 음사의 예를 살펴보자. 『위서』「지형지」에 각지의 음사를 기록하였다. 옹주 함양군 석안현의 사호사(四皓祠)와 주문왕사(周文王祠),[68] 옹주 북지군 부평현의 한무제사(漢武帝祠),[69] 기주 무공군 미

64) 『隋書』 卷29, 「地理志」 上, p.829, "漢中之人, 質樸無文, 不甚趨利. … 崇重道教, 猶有張魯之風焉. 每至五月十五日, 必以酒食相饋, 賓旅聚會, 有甚於三元."

65) 『隋書』 卷29, 「地理志」 上, p.829, "西城・房陵・清化・通川・宕渠, 地皆連接, 風俗頗同."

66) 『隋書』 卷29, 「地理志」 上, p.830, "蜀郡・臨邛・眉山・隆山・資陽・瀘川・巴東・遂寧・巴西・新城・金山・普安・犍爲・越巂・牂柯・黔安, 得蜀之舊域. … 其風俗大抵與漢中不別."

67) 다만 『魏書』「釋老志」를 비롯한 문헌에 불교와 달리 道觀이나 道士의 수를 기록하지 않아 道觀을 몰수하고 道士를 환속하여 얻은 재정 수입을 추산할 수 없다.

68) 『魏書』 卷106下, 「地形志」 2下, 雍州・咸陽郡・石安縣條細注, p.2608, "有四皓祠・安陵城・杜鄠亭・竇氏泉・周文王祠."

양현의 미원묘(美原廟),[70] 빈주 조흥군 양주현의 황제총(黃帝冢),[71] 빈주 양락군 부시현의 황제사(黃帝祠),[72] 태주 북향군 분음현의 후토사(后土祠),[73] 섬주 항농군 북섬현의 등지사(鄧芝祠),[74] 낙주 상락군 상락현의 한고조사(漢高祖祠), 사호사(四皓祠), 고동사(高東祠)[75]가 북주 지역에 해당하는 북위 시대의 음사였다. 여기에 파악되지 않은 음사와 서위북주 시대에 늘어난 음사의 수를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위서』「지형지」에 기록된 최소 11개의 음사를 없애고 이에 부속된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여 국가 재산을 늘릴 수 있었다.

앞에서 불교, 도교, 음사의 재산을 몰수하여 확보할 수 있는 재정수입의 규모를 추산해 보았다. 북주가 갑자기 많은 재정수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북주 무제의 북제 정복이다.[76] 이는 후에 북주 무제가 "불교를 폐한 이후 백성들의 요역이 점차 드물어지고 조조(租調)가 해마다 늘었으며 군사가 나날이 강성하여 동쪽으로 북제(齊國)를 멸망시켰으며 서쪽으로 요융(妖戎)을 평정하니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니 어찌 이익이 없겠는가?"[77]라고 말한 사실에서도

---

69) 『魏書』 卷106下, 「地形志」 2下, 雍州・北地郡・富平縣條細注, p.2609, "有北地城・漢武帝祠."

70) 『魏書』 卷106下, 「地形志」 2下, 岐州・武功郡・美陽條細注, p.2610, "有岐山・太白山・美原廟・駱谷・邵亭."

71) 『魏書』 卷106下, 「地形志」 2下, 豳州・趙興郡・陽周縣條細注, p.2628, "有橋山・黃帝冢・泥陽城・高平城・秋水."

72) 『魏書』 卷106下, 「地形志」 2下, 豳州・襄樂郡・膚施縣條細注, p.2628, "有五龍山・黃帝祠."

73) 『魏書』 卷106下, 「地形志」2下, 泰州・北鄜郡・汾陰縣條細注, p.2631, "有北鄜城・后土祠."

74) 『魏書』 卷106下, 「地形志」 2下, 陝州・恒農郡・北陝縣條細注, p.2631, "有曲沃城・鄧芝祠."

75) 『魏書』 卷106下, 「地形志」 2下, 洛州・上洛郡・上洛縣條細注, p.2632, "有丹水・南秦水・漢高祖祠・四皓祠・高東祠."

76) 袁剛, 「論周武帝"取亂侮亡"滅北齊」, p.69左.

77) 『廣弘明集』 卷10, 「辯惑篇」 第二之六, 周祖巡鄴請開佛法事條, p.160中, "若實無益寧非不孝. 詔曰. 法興有時道亦難準. 制由上行王者作則. 縱有小利尚須休廢. 況佛無益理不可容. 何者敬事無徵招惑無效. 自救無聊何能益國. 自廢已來, 民役稍希, 租調年增, 兵師日盛, 東平齊國, 西定妖戎, 國安民樂, 豈非有益. 若事有益. 太祖存日屢嘗討齊. 何不見獲. 朕壞佛法. 若是違害亦可亡身. 既平東夏. 明知有益. 廢之合理義無更興."

확인할 수 있다. 북주 무제의 종교 탄압 이후 그의 활동에서도 확인된다. 같은 해 유월 정미일(574. 7. 22)에 장수들을 모아 진법을 가르치고[78] 십일월 기사일(574. 12. 11)에 동주(同州)의 성 동쪽에서 대열(大閱)을 벌였다.[79] 북주의 수도 장안(長安) 동북쪽에 위치한 동주가 북제와의 국경선이 가까우므로 북제 공격을 위한 군대의 사열과 점검이라는 목적이 강하였다. 십이월 무자일(574. 12. 30)에 위관(衛官)과 군사들을 모아놓고 동전과 비단을 하사하였으며 신묘일(575. 1. 2)에 형주(荊州)・양주(襄州)・안주(安州)・연주(延州)・하주(夏州) 5주 총관(五州總管) 안의 종군자에게 관직을 주고 하호(下戶)에게 3년 면제했고 병신일(575. 1. 7)에 군사의 명칭을 시관(侍官)으로 고쳤다.[80] 장교와 사병에게 각종 물자를 하사하거나 관직을 줬던 이유가 이들의 충성심과 사기 확보였음이 분명하다. 주요 목적이 황제권 강화였지만 북제와의 전쟁을 대비한 포석도 있었을 것이다. 다음 해인 건덕 4년 정월 무진일(575. 2. 8)에 영군기감(營軍器監)을 설치하였다.[81] 이곳에서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실제로 같은 해 칠월 정축일(575. 8. 16)에 북제 공격을 위해 진왕 우문순, 사마소난, 달해진, 월왕 우문성, 후막진경, 조왕 우문초를 총관(總管)에 임명하며 부대를 편성하고 제왕 우문헌, 후막진예, 이목, 우익 등에게 진격을 명령하였다. 임오일(575. 8. 21)에 무제가 육군(六軍)을 이끌고 하음(河陰)으로 진격하였다.[82] 그러나 팔월에 이기지 못

78)『周書』卷5,「武帝紀」上, 建德三年六月丁未條, p.85, “六月丁未, 集諸軍將, 教以戰陣之法.”

79)『周書』卷5,「武帝紀」上, 建德三年十一月己巳條, p.86, “己巳, 大閱於城東. 甲戌, 至自同州.”

80)『周書』卷5,「武帝紀」上, 建德三年十二月條, p.86, “十二月戊子, 大會衛官及軍人以上, 賜錢帛各有差. 辛卯, 月掩太白. 詔荊・襄・安・延・夏五州總管內, 有能率其從軍者, 授官各有差. 其貧下戶, 給復三年. 丙申, 改諸軍軍士並為侍官.”

81)『周書』卷6,「武帝紀」下, 建德四年春正月戊辰條, p.91, “初置營軍器監.”

82)『周書』卷6,「武帝紀」下, 建德四年秋七月條, p.93, “[丁丑]以柱國陳王純為前一軍總管, 滎陽公司馬消難為前二軍總管, 鄭國公達奚震為前三軍總管, 越王盛為後一軍總管, 周昌公侯莫陳瓊為後二軍總管, 趙王招為後三軍總管, 齊王憲率眾二萬趣黎陽, 隨國公楊堅・廣寧侯薛迥舟師三萬自渭入河, 柱國梁國公侯莫陳芮率眾一萬守太行道, 申國公李穆帥眾三萬守河陽道, 常山公于翼帥眾二萬出陳・汝. 壬午, 上親率六軍, 眾六萬, 直指河陰.”

하고 구월에 회군하였다.[83] 건덕 5년 구월 정축일(576. 10. 9)에 정무전(正武殿)에서 동벌(東伐), 즉 북제 공격을 축원하였고[84] 시월에 신하들에게 북제 공격을 선언하였다.[85] 이어서 시월 기유일(576. 11. 10)에 월왕 우문성, 기국공 우문량, 양견, 초왕 우문검, 두공, 구숭, 제왕 우문헌, 진왕 우문순 등을 총관에 임명하여 북제로 진격하였다.[86] 십이월 경신일(577. 1. 20)에 북제의 실질적인 수도이자 군사 중심지인 태원(병주)을 점령하고[87] 건덕 6년 정월 계사일(577. 2. 10)에 북제의 수도 업을 점령하여[88] 사실상 북제를 정복하였다. 무제의 불교

---

83)『周書』 卷6, 「武帝紀」 下, 建德四年條, p.93, “八月癸卯, 入于齊境. 禁伐樹踐苗稼, 犯者以軍法從事. 丁未, 上親率諸軍攻河陰大城, 拔之. 進攻子城, 未克. 上有疾. 九月辛酉夜, 班師, 水軍焚舟而退. 齊王憲及于翼·李穆等所在克捷, 降拔三十餘城, 皆棄而不守. 唯以王藥城要害, 令儀同三司韓正守之. 正尋以城降齊. 戊寅, 至自東伐. 己卯, 以華州刺史·畢王賢為荊州總管.”

84)『周書』 卷6, 「武帝紀」 下, 建德五年九月丁丑條, p.95, “九月丁丑, 大醮於正武殿, 以祈東伐.”

85)『周書』 卷6, 「武帝紀」 下, 建德五年冬十月條, p.95, “冬十月, 帝謂羣臣曰: ‘朕去歲屬有疹疾, 遂不得克平逋寇. 前入賊境, 備見敵情, 觀彼行師, 殆同兒戲. 又聞其朝政昏亂, 政由羣小, 百姓嗷然, 朝不謀夕. 天與不取, 恐貽後悔. 若復同往年, 出軍河外, 直為撫背, 未扼其喉. 然晉州本高歡所起之地, 鎮撫要重, 今往攻之, 彼必來援, 吾嚴軍以待, 擊之必克. 然後乘破竹之勢, 鼓行而東, 足以窮其窟穴, 混同文軌.’ 諸將多不願行. 帝曰: ‘幾者事之微, 不可失矣. 若有沮吾軍者, 朕當以軍法裁之.’”

86)『周書』 卷6, 「武帝紀」 下, 建德五年冬十月條, pp.95-96, “己酉, 帝總戎東伐. 以越王盛為右一軍總管, 杞國公亮為右二軍總管, 隨國公楊堅為右三軍總管, 譙王儉為左一軍總管, 大將軍竇(泰)[恭]為左二軍總管, 廣化公丘崇為左三軍總管, 齊王憲·陳王純為前軍. 庚戌, 熒惑犯太微上將. 戊午, 歲星犯太陵. 癸亥, 帝至晉州, 遣齊王憲率精騎二萬守雀鼠谷, 陳王純步騎二萬守千里徑, 鄭國公達奚震步騎一萬守統軍川, 大將軍韓明步騎五千守齊子嶺, (焉)[烏]氏公尹昇步騎五千守(鍾)鼓[鍾]鎮, 涼城公辛韶步騎五千守蒲津關, 柱國·趙王招步騎一萬自華谷攻齊汾州諸城, 柱國宇文盛步騎一萬守汾水關. 遣內史王誼監六軍, 攻晉州城. 帝屯於汾曲. 齊王憲攻洪洞·永安二城, 並拔之. 是夜, 虹見於晉州城上, 首向南, 尾入紫微宮, 長十餘丈. 帝每日自汾曲赴城下, 親督戰, 城中惶窘. 庚午, 齊行臺左丞侯子欽出降. 壬申, 齊晉州刺史崔景嵩守城北面, 夜密遣使送款, 上開府王軌率眾應之. 未明, 登城鼓噪, 齊眾潰, 遂克晉州, 擒其城主特進·開府·海昌王尉相貴, 俘甲士八千人, 送關中. 甲戌, 以上開府梁士彥為晉州刺史, 加授大將軍, 留精兵一萬以鎮之. 又遣諸軍徇齊諸城鎮, 並相次降款.”

87)『周書』 卷6, 「武帝紀」 下, 建德五年十二月條, p.98, “戊午, 高延宗僭即偽位, 改年德昌. 己未, 軍次并州. 庚申, 延宗擁兵四萬出城抗拒, 帝率諸軍合戰, 齊人退, 帝乘勝逐北, 率千餘騎入東門, 詔諸軍繞城置陣. 至夜, 延宗率其眾排陣而前, 城中軍卻, 人相蹂踐, 大為延宗所敗, 死傷略盡. 齊人欲閉門, 以閣下積尸, 扉不得闔. 帝從數騎, 崎嶇危險, 僅得出門. 至明, 率諸軍更戰, 大破之, 擒延宗, 并州平.”

88)『周書』 卷6, 「武帝紀」 下, 建德六年春正月乙亥條, p.100, “六年春正月乙亥, 齊主傳位於其太子恆, 改年承光, 自號為太上皇. 壬辰, 帝至鄴. 齊主先於城外掘塹豎柵. 癸巳, 帝率諸軍圍之, 齊人拒守, 諸軍奮擊, 大破之, 遂平鄴. 齊主先送其母并妻子於青州, 及城

와 도교 탄압이 벌어진 같은 해부터 북제 공격을 위한 전쟁 준비를 시작하였고 다음 해부터 북제를 공격했던 무제의 활동을 보면 그의 종교 탄압이 북제 공격을 위한 부국강병 또는 재정 확보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Ⅳ. 결론

북주 무제가 건덕 3년 오월 병자일(574. 6. 21)에 불교와 도교를 탄압하고 경전과 상(像)을 모두 없애고 사문과 도사를 백성으로 환속하라고 명령하였다. 아울러 일체의 음사를 모두 금하였으며 예전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하였다. 그가 불교만 탄압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유가사상을 제외한 모든 종교와 신앙, 제사를 없앴다. 심지어 그가 북제를 정복한 후 북제의 옛 땅에서 불교를 탄압하고 재산을 몰수하였다. '종교 탄압' 정책과 달리 북주 무제가 사적으로 도교와 불교를 믿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인골을 분석한 결과 그가 생전에 비소에 중독되었음이 증명되었다. 북주 무제의 무덤 속 관에서 발견된 불상도 그의 불교 신앙을 반영한 유물이다. 이는 그가 생전에 도교의 불로장생술을 믿고 도사들을 가까이했으며 불교를 비밀리에 또는 사적으로 믿었던 증거이다.

북주 무제가 종교 탄압 이후에도 도교와 불교를 사적으로 믿었음이 밝혀진 이상, 그의 종교 탄압이 개인적인 신앙이나 불교나 도교의 교리나 우열 문제가 아니라 종교 사원의 재산을 몰수하는 경제적 동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북주 무제 시기에 돌궐에 굴종하여 해마다

陷, 乃率數十騎走青州. 遣大將軍尉遲勤率二千騎追之. 是戰也, 於陣獲其齊昌王莫多婁敬顯. 帝責之曰: '汝有死罪者三: 前從并走鄴, 攜妾棄母, 是不孝; 外為偽主戮力, 內實通啟於朕, 是不忠; 送款之後, 猶持兩端, 是不信. 如此用懷, 不死何待.' 遂斬之."

북주 호수의 27.9%에 해당하는 각종 비단 10만 단을 헌상해야 했기 때문에 북주가 재정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를 벌충하기 위해 북주 무제가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재정 수입을 늘려야 했다. 종교 탄압 이전에 그가 궁중, 중앙과 지방 기구의 축소와 관직의 삭감 등 비용을 줄였다. 그러나 흉년과 우역으로 인한 농사지을 소의 죽음 때문에 농업생산량이 증가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재정 악화의 상황에서 그가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불교와 도교를 비롯한 종교 단체의 재산을 몰수하고 중량을 무시한 화폐(오행대포전)를 발행하여 화폐 주조차익을 취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오행대포전의 불법 주조를 막지 못하여 처음에 기대하는 화폐 주조차익 전체를 취하지 못하고 관중 지역에만 이 화폐를 유통시켰을 뿐이다. 오행대포전 발행을 통한 화폐주조차익을 기대만큼 거두지 못한 반면, 불교와 도교, 음사의 재산 몰수가 유일하게 성공하였다. 왕중락이 북주 시대 불교 사원이 1만여 소에 달하였고 승려가 약 1백만 명에 가까웠다고 추산하였다. 북주의 세법에 따르면 북주가 이들로부터 거둘 수 있는 조세가 견 50만 필, 면 400만 량, 속 250만 곡(미혼인 경우) 또는 견 100만 필, 면 800만 량, 속 500만 곡(결혼한 경우)이었다. 수나라 때 인구 비율로 계산하여 불교 사원 21,680소, 승려 162.5만 명이라는 필자의 추산에 따르면, 북주의 수입이 견 81.3만 필, 면 650.4만 량, 속 406.5만 곡(미혼인 경우) 또는 그 배(결혼한 경우)로 계산된다. 여기에 도교 사원 및 음사의 재산과 환속한 도사들에게서 거둔 조세를 포함하면 북주 조정이 막대한 재정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불교와 도교 등 종교 탄압 이후 북주 무제의 활동을 살펴보면 재정수입에 집착한 이유가 북제와의 전쟁을 위한 전쟁비용 마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끌어모은 자금으로 북제를 공격한 병력이 8만 5천 명이었다.[89] 반면

89) 『周書』에서 北周軍의 총수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晉州城에 도착했을 때 北周 武帝가 장수들에게 내린 명령을 보면 宇文憲이 精騎 2만 명, 宇文純이 步騎 2만 명, 達奚震이 步騎 1만 명, 韓明이 步騎 5천 명, 尹昇이 步騎 5천 명, 辛韶가 步騎 5천 명, 宇文招가 步騎 1만 명, 宇文盛이 步騎 1만 명을 지휘하였다. 여기에 언급된 병

북주군과 싸우기 위해 북제가 동원한 병력이 최소 10만 명이었다.[90] 경제력만 비교하면 북주보다 북제가 우세했다. 증선(繒禪)을 착용한 북제의 병졸을 장수로 오인한 『수당가화』의 일화[91]를 보면 북주보다 북제가 부유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북주 무제가 온갖 방법을 써서 전쟁 비용을 마련하려고 해도 북제보다 못했다. 그러나 북제 후주가 진주성 전투에서 실수만 했지만, 북주 무제가 그나마 지휘를 잘하여 승패가 결정되었고, 이 전투가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꿨을 뿐이다.[92]

력을 합하면 8만 5천 명이다. 『周書』 卷6, 「武帝紀」 下, 建德五年十月癸亥條, pp.95-96, "癸亥, 帝至晉州, 遣齊王憲率精騎二萬守雀鼠谷, 陳王純步騎二萬守千里徑, 鄭國公達奚震步騎一萬守統軍川, 大將軍韓明步騎五千守齊子嶺, (焉)[烏]氏公尹昇步騎五千守(鍾)鼓[鍾]鎮, 涼城公辛韶步騎五千守蒲津關, 柱國·趙王招步騎一萬自華谷攻齊汾州諸城, 柱國宇文盛步騎一萬守汾水關."

90) 『北齊書』에서 北齊軍의 병력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周書』 卷12 「齊煬王憲傳」에서 齊主, 즉 北齊 後主가 10만 명을 데리고 晉州城을 구하러 왔다고 기록하였다. 『周書』 卷12, 「齊煬王憲傳」, p.191, "齊主聞晉州見圍, 乃將兵十萬, 自來援之."

91) 『隋唐嘉話』, 劉餗 撰, 程毅中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97), 補遺, p.61, "後魏末, 周齊交爭, 周人貧甚, 嘗獲一齊卒, 喜曰: '得一將.' '何以知之?' 曰: '著繒禪.'"

92) 袁剛, 앞의 글, p.69右, p.70左; 최진열, 『중국 북조(北朝) 지방통치 연구』 (파주: 아카넷, 2019), pp.784-785, pp.793-794.

【참 고 문 헌】

『魏書』

『周書』

『隋書』

『北史』

『續高僧傳』, 道宣 撰, 郭绍林 点校, 北京: 中華書局, 2014.

『法苑珠林』, 唐 僧道世, 『文淵閣四庫全書』 1050冊,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隋唐嘉話』, 劉餗 撰, 程毅中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97.

『全隋文』, 嚴可均 輯, 史建橋等 審訂, 北京: 商務印書館, 1999.

『佛祖統紀』

『廣弘明集』, 『佛藏要籍選刊』 3,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박한제, 「중화(中華)의 분열과 인근 각국의 대응: '다중적' 중화세계의 성립」, 『중국학보』 54, 2006. http://uci.or.kr/G704-000184.2006..54.001

최진열, 『중국 북조(北朝) 지방통치 연구』, 파주: 아카넷, 2019.

_____, 「동위(東魏)·북제(北齊) 수도 업(鄴) 거주 한인(漢人)의 다문화 공존: 한문화(漢文化)·호속(胡俗)·서역문화 공존과 영향」, 『중국학연구』 100, 2022. https://doi.org/10.36493/JCS.100.25

_____, 「서위북주(西魏北周)와 돌궐의 견마무역(絹馬貿易)의 실상: 서위북주의 저자세가 초래한 재정 부담」, 『인문학연구』 44, 2025. https://doi.org/10.31323/SH.2025.12.44.08

川本芳昭, 「胡族國家」, 『魏晉南北朝隋唐時代史の基本問題』, 東京: 汲古書院, 1997.

塚本善隆, 「北周の廢佛に就いて」, 『塚本善隆著作集』 第二卷 北朝佛教史研究, 東京: 大東出版社, 1974.

渡邊信一郎 代表, 『北朝樂制史の研究: 『魏書』樂志を中心に』, 平成十六-十九年度科研費報告書, 2008.

馬曉麗・崔明德,「對拓跋鮮卑及北朝漢化問題的總體考察」,『中國邊疆史地研究』22-1, 2012.

裴恒濤,「北周武帝的文化政策論略」,『遵義師範學院學報』11-1, 2009.

陝西省考古研究所・咸陽市考古研究所,「北周武帝孝陵發掘簡報」,『考古與文物』1997-2, 1997.

杨帆, 「北周武帝开发西北经济初探」, 『乌鲁木齐成人教育学院学报』 15-4, 2007.

楊翠微,「周武帝滅齊統一北方可能性探析」,『求是學刊』1998-3, 1998.

呂春盛,『關隴集團的權力結構演變: 西魏北周政治史研究』, 板橋: 稻鄉出版社, 2002.

_____,「北周後期的擴張與弱點的深化」,『關隴集團的權力結構演變: 西魏北周政治史研究』, 板橋: 稻鄉出版社, 2010(再版).

王仲犖,『魏晉南北朝史』下冊,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0.

袁剛,「論周武帝"取亂侮亡"滅北齊」,『許昌師專學報』19-4, 2000.

原州聯合考古隊, 『北周田弘墓』(原州聯合考古隊發掘調查報告之二), 北京: 文物出版社, 2009.

劉國石, 「簡論西魏北周改革: 兼論孝文改制未盡之歷史任務」, 『民族研究』1999-3, 1999.

任繼愈 主編,『中國佛教史』第三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

張祥光,「論北周武帝」,『貴州社會科學』1981-1(總四期), 1981.

張堯成・張石恒,「河南禹州市出土北周錢幣」,『中國錢幣』2011-1, 2011.

趙文潤,「西魏北周時期的社會思潮」,『文史哲』1993-3, 1993.

趙文潤・陳鼎中, 「西魏北周時期的關中農業」, 『陝西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2-1, 1993.

趙敏銳, 「"舊俗"與"新制": 北朝"鮮卑特性"研究」, 雲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21.

朱安祥, 「大收商估之利: 北周貨幣政策初探」, 『河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37-4, 2019.

周一良,「論宇文周之種族」,『周一良集』第一卷(魏晉南北朝史論), 瀋陽: 遼寧教育出版社, 1998.

中國錢幣大辭典編纂委員會 編, 『中國錢幣大辭典: 魏晉南北朝隋編』, 北京: 中華書局, 2003.

湯錫予,『漢魏兩晉南北朝佛教史』, 臺北: 鼎文書局, 1982.

韓昇,「北周武帝之死及其宗教文化政策」,『學術月刊』55-7, 2023.

孫麗萍・丁汀,「科技考古"一鍵還原"北周武帝宇文邕」,《新華每日電訊》 2024年 3月 29日(第011版).

趙苗軼 等,「科技還原北周帝王面貌: 聚焦北周高等級墓葬考古研究新成果」,《陝西日報》 2024年 4月 17日(第011版).

■ **Abstract**

The Background of the Religious Persecution Enacted upon Buddhism and Taoism by Emperor Wu of Northern Zhou Dynasty

Choi Jin-yeoul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Korean Histor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even though Emperor Wu, the third emperor of the Northern Zhou Dynasty, persecuted and banned Taoism and Buddhism, he actually believed in Buddhism and had a keen interest in Taoist magic aimed at attaining immortality. In 574, the devout emperor prohibited all religions, beliefs, and non-state-recognized illicit sacrificial rites, called *yinsi* in Chinese. This included Buddhism and Taoism. Therefore, his measures should be reinterpreted not as the suppression of Buddhism, but as the suppression of religion more broadly. Contrary to popular belief, Emperor Wu of the Northern Zhou Dynasty not only suppressed Buddhism but also eliminated all religions, beliefs, and ancestral rites, except for some forms of Confucianism. A Buddhist statue was unearthed from his tomb, revealing that the emperor, who persecuted religion, practiced Buddhism privately and personally. Analysis of his bones confirmed that he suffered from arsenic poisoning, which is

consistent with his symptoms recorded in historical records such as the *Book of Changes*, which means that he met with Taoist monks and was interested in Taoist elixirs of immortality. Contrary to the policy of *religious oppression*, it is presumed that Emperor Wu of the Northern Zhou Dynasty privately believed in Taoism and Buddhism. This article further argues that his religious persecution was due to lack of financial income. He attempted to profit seigniorage from the minting of currency by circulating a currency called *wuxingdabuqian* (五行大布錢), but this currency caused inflation and merchants and commoners refused to use it. Therein, he failed to achieve his goal. Amidst this failure to secure fiscal revenue, he needed military funds to wage war against the Northern Qi forces, so it was important to confiscate Buddhist and Taoist property and force the Buddhist and Taoist monks to return to secular life and engage in taxable agriculture. Looking at Emperor Wu of the Northern Zhou Dynasty's activities after the suppression of religions such as Buddhism and Taoism, it can be shown that the reason he was obsessed with financial income was to secure war funds for the war with the Northern Qi forces.

Keywords: Emperor Wu of the Northern Zhou Dynasty, religious oppression, devout Buddhist, taking Taoist elixirs of immortality, arsenic poisoning, confiscation of religious property, military expenses for the conquest of Northern Qi

논문투고일 : 2026.07.24. 심사완료일 : 2026.08.25. 게재확정일 : 2026.09.28.